

# 형식인가 기능인가?\*

이 종 민  
(전북대학교)

Lee, Chongmin. 2002. *Form or Func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575-587.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contrastive nature of formalism and functionalism in linguistics. Though the mainstreams of linguistic analysis have been focused on the form and function, they have been challenged from each other's strong points. On the one hand, the formal description has been studied in the tradition of generative grammar. On the other hand, the functional nature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framework of language use. It seems undesirable to argue that there is one-sided bias toward any type of linguistic approach. I try to present a balanced view of these two contrastive approaches. We also argue that there should be a cooperative work in developing the mutual growth of linguistic theory.

## 1. 형식과 기능의 대비

형식인가 기능인가의 논의는 언어에 대한 형식주의와 기능주의의 접근을 대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형식주의의 방법론과 기능주의의 방법론을 균형감 있게 비교하여 현재의 언어학이 두 개의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언어학 심포지엄에서 형식주의와 기능주의가 나란히 논의된 최근의 시기는 1996년에 열린 23차 밀워키 위스콘신 대학교의 학술대회라고 볼 수 있다. 이 학회에서는 형식주의자와 기능주의자를 서로 반대되는 입장의 언어담구로 보아서 서로의 방법론이 얼마나 다르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충해줄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총회가 되었다. 이 대회의 연구 결과가 다넬 외(Darnell et al. 1999)에 의하여 편집된 책으로 나왔다. 뉴마이어(Newmeyer 1998)는

---

\*이 논문은 1999년도 전북대학교 학술연구 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형식과 기능을 균형 있게 비교하고 있는 총괄적인 연구가 되고 있다. 아울러, 시카고 언어학회가 형식주의와 기능주의의 비교를 2001년의 중심 테마로 선정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마이어(Newmeyer 1998)는 언어형식과 언어기능을 큰 주제로 삼아, 가상적인 두 인물을 대비시키는 것으로 형식주의와 기능주의를 대비하고 있다. 즉, 형식주의의 박사논문을 쓴 포맨(Forman)과 기능주의의 박사논문을 쓴 펑크(Funk)라고 희화적으로 명명한다. 오랜 전통 속에서 지속되어온 형식주의와 이제 새롭게 발전하여 나아가고 있는 방법론으로서의 기능주의를 대비하려는 것이다.<sup>1)</sup>

형식과 기능의 논의는 근대의 건축에서도 제기되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에서 해답이 없어 보이듯이, 형식이 먼저냐 기능이 먼저냐의 논의도 해답이 없을 듯이 보인다. 오히려 근대의 건축에서는 기능 중심의 논의가 주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인국 1982). 우선 다음과 같은 개념이 근대 건축에서 받아들여졌다.

(1) 형식은 기능에서 나온다. (Form follows function.)

쉬운 예를 들면, 목욕을 하려는 기능의 필요에 따라 목욕통이라는 형식이 만들어진다. 이를 일반화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은 창안되는 것 같다. 조각에 이 개념을 응용하면, 더 쉽거나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보면, 인간이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기능을 아주 잘 예술적으로 포착한 조각이라는 형식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1)의 형식이 기능에서 나온다는 명제가 단순논리로 입증된다면, 형식주의는 기능에게 근본을 내주어야 하고, 독자적 위치를 잃게 될 것이다.

형식론의 언어학을 연구하는 포맨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형식이 기능에서 나온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이를 (2)와 같은 명제로 연역적 논증을 전개할 수 있다.

<sup>1</sup>형식론과 기능론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는 뉴마이어(Newmeyer 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 (2) 형식은 기능을 좌우한다. (Form defines function.)

의자라는 모양의 형식은 사람이 앉는 기능에 맞게 만들어진다. 의자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의자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의자인가에 따라 앉는 자세도 달라질 수 있다.

다시금 로댕의 조각을 비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과연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청동상을 빚어낼 때 생각한다는 기능에 맞추어 턱을 편 자세라는 형식을 창조했을까? 나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 로댕은 적어도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하기에 앞서서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을 머리 속에 그렸을 것이다. 만약 로댕이 이러한 스케치나 데생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설혹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로댕은 서 있는 사람, 뛰어나가는 사람, 등등을 무수히 만들어놓고 그 중의 하나를 골라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앤더슨(Anderson 1999, p. 122)은 오리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가 월터 로이더(Walter Reuther)에게서 빌려온 비유를 다시 빌려보자.

(3) “만일 그것이 오리처럼 보이고,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깉깉 대면, 그것은 오리이다.” (If it looks like a duck, walks  
 like a duck, quacks like a duck, then it is a duck.)

그것이 어떤 새의 종류라고 가정하고, 오리로서 기능하면 과연 그것을 우리는 오리라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오리로서의 여러 기능을 거의 다 가졌지만, 다만 병아리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오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앤더슨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3)에 대한 태도에 따라 형식주의자와 기능주의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아마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논의의 소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형식과 기능의 관계는 무엇이고, 기능주의의 기능이란 과연 무엇인

가를 정의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흔히 미국의 언어학에서 기능이라고 한다면, 누난(Noonan 1999)이 가리키는 기능은 이른바 미국 서해안 지역의 기능 또는 인지 기능(cognitive func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에서는 인지 문법(cognitive grammar)를 시작으로, 구문 문법(construction grammar), 기흥 문법(Emergent Grammar), 기능-유형 문법(Function-Typology Grammar), 회화분석(Conversational Analysis), 용법 기초 문법(Usage-based Grammar) 등이 있다(Noonan 1999, p. 11). 여기에 미국 동부의 기능문장론(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등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sup>2)</sup>

두 번째 논의는 적어도 형식주의자나 기능주의자가 똑같이 다룰 수 있는 언어자료를 제시하여 도대체 형식적 기술(formal description)과 기능적 기술이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다. 이 소재를 다루는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지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부류의 구문에 대한 기술의 틀이 유사한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경우는 형식주의 접근법에 비교적 가까운 동부의 기능문장론을 원용할 수도 있다. 나아가, 서해안의 인지 문법이나 기능-유형 문법이나 구문 문법에서 다루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논의는 국내의 언어학자들은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는가를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여기서 조심스런 논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록 균형 있는 논의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느 한 쪽에서 보면 논의는 항상 치우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뉴마이어(Newmeyer 1998)가 그러하듯이, 나 스스로는 형식주의 언어학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에 있다. 국내의 상황을 보면, 형식주의 언어학자들과 기능주의 언어학자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2. 형식주의와 기능주의

형식주의와 기능주의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누난(Noonan 1999)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형식주의의 방법론이 구조주의의 방식이고, 기능주의의 연구방법은 구조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sup>2)</sup>기능이라고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부류의 개념이 가능할 것이다. 인지적 기능, 의사전달 기능, 그리고 수리적 기능 등이 있다.

풀이하고 있다. 크로프트(Croft 1995)와 누난(Noonan 1999)은 형식주의 또는 구조주의의 가장 현격한 특성을 통사적 자립성 (autonomy of syntax) 또는 간단하게 자립성에 두고 있다. 자립성에 대한 아주 잘 만들어진 정의는 다음과 같다(Newmeyer 1998, p. 23).

- (4) 자립성 또는 통사적 자립성: 인간의 인지는 어떤 체계의 원시적 개념들이 비의미적이고 담화에서 얻어지지 않는 통사적 요소들인 체계 그리고 그 체계의 구성원리가 체계-외부의 요인들을 언급하지 않는 체계를 구현한다. (Human cognition embodies a system whose primitive terms are nonsemantic and nondiscourse-derived syntactic elements and whose principles of combination make no reference to system-external factors.)

자립성이란 통사부가 의미나 담화와는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외부적 요소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자립성의 가설 속에는 이른바 '스스로 포함됨 (self-containedness)'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다. 구조의 개념 안에 의미 등의 해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조를 기초로 삼는 형식주의와는 달리 기능을 기초로 삼는다고 할 때 기능은 과연 무엇인가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능은 인지 기능 또는 의사전달 기능 (communicative function)을 의미하는 것 같다(Noonan 1999, Kuno 1987).

인지 기능으로서의 기능문법은 아예 문법의 모형이 구조적이지 아니다고 말하지만, 의사전달 기능으로서의 기능문법은 구조적이지 아니다고 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인지 기능의 비-구조적 통사론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누난(1999, p. 24-25)은 기능문법 또는 새로운 비-구조적 통사론이 가져야 하는 특성을 여럿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세 개의 주요한 특성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5) a. 비-구조적 통사론의 모형은 구조주의 방식이 아니다.  
 b. 이 모형은 조합을(modules)을 설정하지 않는다.  
 c. 이 모형에서는 범주들이 비연속적(discrete)이 아니다

위의 세 가지 특성만을 보아도, 형식주의 모형과는 완전히 대립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기능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 기능주의가 형식주의와 구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누난은 좀 더 적극적으로 비-구조주의 통사론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Noonan 1999, p. 29).

- (6) a. 통사론의 기본 단위는 도식(schemas)이다.<sup>3)</sup>  
 b. 하나의 도식은 하나의 주어진 유형을 여러 번 발화한 예들로부터 추상화된다.  
 c. 하나의 발화가 갖는 의미는 단어와 도식의 의미를 종합한다.

누난 자신은 기능문법의 모형에 입각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는 대신에, 기능문법의 윤곽을 그려 놓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형식주의를 대표하는 논문으로 수록된 라즈닉(Lasnik 1999)과 대조된다. 왜냐하면 라즈닉은 형식주의 논문을 수록하고, 다만 형식주의에 대한 논의는 고작 한 페이지 분량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사론의 기본 단위가 도식이라고 할 때 어떤 도식인가에 대한 해석은 기능주의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구문문법의 도식은 인지문법의 도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 여러 종류의 기능문법들이 각각 고유한 도식으로 개념을 표상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형식주의에서 나무그림으로 문장의 구조를 표상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기능문법의 대표적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구문문법에 한정하여 형식주의를 비교해보자. 구문(construction)은 생성주의에서 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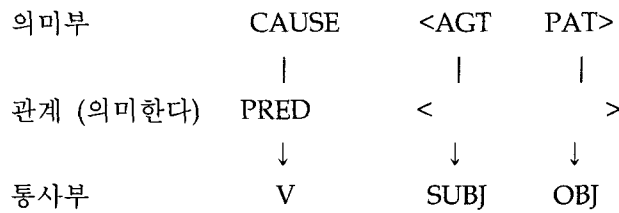
<sup>3)</sup>누난(Noonan 1999)이 주장하는 기능문법의 비-구조적 특성과 도식이라는 '구조적 개념'은 상반된 의미를 갖는 듯하다. 즉, 도식이 적극적 의미에서는 구조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는 문장에 해당하고, 각 구문에 부여되는 도식(schema)은 생성주의의 나무그림(tree diagram)에 대응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구문문법의 도식은 나무그림이 갖는 것과 같은 자립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의 목적어 구문이 갖는 표상을 보자(Cf. Goldberg 1995).

(7) John kicked the ball.

(8) 타동사 구문



동사 kick의 논항구조를 타동사 구문의 일반적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 (8)이다. 이러한 표상은 나무그림이 갖는 표상과 사뭇 다르다. 즉, 나무그림이 자립성의 개념을 필요충분하게 보여주는 반면에, 구문문법의 도식은 자립성의 개념을 거의 보여주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립성의 개념이 문법이론의 틀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기능문법은 자립성의 척도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다.

구구조를 표상하는 나무그림에 대한 최근의 여러 빛나는 성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명확해진다. 예를 들면, 헤일과 카이저(Hale and Keyser 1993)는 역할(thematic roles)의 부여까지 나무그림에서 추출하고 있고, 케인(Kayne 1995)은 어순의 존재를 부정하기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림쇼(Grimshaw 1997)와 촘스키 Chomsky 1996b)는 나무그림이 여러 개념적 복잡성을 제거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문문법이 제시하는 (8)의 도식은 세부사항을 각각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찰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 것도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와 기능주의는 여러 특징을 공유하

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무그림이건 도식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구조를 표상하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비록 생성주의가 구문보다는 일반적인 연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 기능주의는 구문의 세밀한 기술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3. 형식주의는 기능주의의 기초다

기능주의라고 통상적으로 쉽게 일컬어지고 있지만, 기능론자마다 기능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쓰일 수 있다. 적어도 쉽게 눈에 띄는 기능의 개념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의사전달 기능과 인지 기능이 있다. 두 갈래의 기능을 차례로 논의하기로 하자.

초기의 생성문법은 능동문과 수동문을 같은 심층구조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Akmajian and Heny 1975). 다음의 문장을 보자.

- (9) a. John broke the vase.  
b. The vase was broken by John.

형식주의의 문법인 생성문법에서는 위의 두 문장이 인지적 동의성(cognitive synonymy)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동의성은 의사전달 기능의 관점에서는 동의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9a, b)에서 각각의 주어가 주제어(topic)가 되기 때문이다. 의사전달의 기능에서 볼 때 두 문장은 의미가 다르다(Givon 1993; Kuno 1987).

기능문법은 (9a)와 (9b)가 주제(theme)와 부제(rheme)라는 근년에 작고한 프라하 학파의 쟈 피어바스(Jan Firbas 1921-2000)가 제창한 기능문장론을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채택한다. 즉, 주어가 그 문장에서 주제어성(topicality) 또는 주제성(thematicity)이 가장 높은 요소가 된다. 따라서, 능동문과 수동문 사이의 주어가 교체되는 것은 주제어성이 높은 요소를 바꾸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의사전달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능동문과 수동문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형식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물론 기능문법이 제기한 문제는 인지적 동의성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의사전달 기능의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는 능동문과 수동문을 단순하게 인지적 동의성을 가진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아가, 두 문장의 어휘적 구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지적 동의성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인지적 동의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인지(cognition)의 정확한 의미를 가늠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의 생성문법에서 인지적 의미가 같다는 주장은 진리치(truth value)가 같다는 뜻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즉, 파슨스(Parsons 1991)의 사건 의미론의 개념에서 파악할 때, 사건의 내용이 같다는 결과가 나온다. 나아가, 촘스키(Chomsky 1981)에서는 능동문과 수동문의 심층 구조를 아주 다르게 표상함으로써 두 문장의 인지 동의성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이러한 변화는 최소주의에서도 유효하다.

기능문법은 의사전달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능동문과 수동문은 구별하지만, 인지적 동의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능문법의 반박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형식문법은 능동문과 수동문은 인지적 동의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기능문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았다면, 형식문법은 처음과 지금의 주장을 바꾸었다. 이러한 바꿈이나 변화는 형식문법이 가지는 이론적 체계의 내부적 특성에 따른다.

의사전달 기능을 중심으로 삼는 기능문법은 구조라는 형식의 개념을 부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식을 제안하지도 않는다. 형식주의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다만 의사전달 기능의 개념이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기능문법은 굳이 구조 아닌 기능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오히려 기능주의조차도 구조라는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기능주의가 곧 형식주의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제 의사전달 기능이 아닌 인지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구문문법의 경우를 보자. 구문문법에서 찾을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을 우선 두 가지만으로 제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는 구문문법에서 의미를 다루는 방식이 이른바 창틀 의미론(frame

semantics)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서 창틀은 그냥 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문장을 (인지적) 창틀의 모양에 따라 의미해석을 다르게 부과한다는 뜻에서 창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Goldberg 1995, p. 31).

- (10) a. She skipped over the crack in the ground.  
 (She did not touch the crack.)  
 b. She crawled over the crack in the ground.  
 (She did touch the crack.)

위의 문장에서 주동사로 쓰이는 skipped와 crawled의 의미 창틀을 대비시키는 것은 틈을 만지느냐와 만지지 않느냐를 구분짓는 창틀의 차이로 본다.

구문문법이라는 기능주의에서 이루는 커다란 성과는 각 문장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는 것이다. 형식주의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한 완벽한 또는 완벽에 가까운 설명을 기능주의는 찾아낸다. 이를 다른 창으로 본다면, 형식주의가 자립성이라는 한계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기능주의는 의미적, 화용적, 상황적, 은유적 방법 등을 총괄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구문문법에서 찾을 수 있는 기능주의의 또 하나의 좋은 특징은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다음의 문장을 보자(Goldberg 1995, p. 11).

- (11) a. Pat kicked the wall.  
 b. Pat kicked Bob black and blue.  
 c. Pat kicked the football into the stadium.  
 d. Pat kicked at the football.  
 e. Pat kicked his foot against the chair.  
 f. Pat kicked Bob the football.  
 g. The horse kicks.  
 h. Pat kicked his way out of the operating room.

형식문법으로서는 위의 문장들을 하나로 된 하위범주화의 틀로 표

상할 수가 없다. 구문문법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융합된 도식(fused schema)’으로 표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는 왈린스카 드 학베일(Walinska de Hackbeil 1986, p. 200)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12) a. John swims.  
 b. John swims across the river.  
 c. John swam the river twice.  
 d. We swim the horses through the river every night.

여러 개로 된 하위범주화의 틀을 사용할 때만이 (12)의 문장들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을 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구문문법에서는 하나의 창틀로 표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구문문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각 언어의 여러 문장을 세밀하게 기술하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반대편 측면에 있다. 즉, 하위범주화라는 하나의 틀로 표상될 수 없는 특성을 하나의 창틀이나 장면(scene)으로 표상함에 따라 각각의 표상이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창틀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약점과 하위범주화를 총괄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능주의적 기술의 기본은 형식주의의 구조에 기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조라는 뼈대에 기능이라는 벽돌을 어떻게 쌓아올리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능주의와 형식주의의 통합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면서 서로의 긴장을 확대하여, 새로운 이론체계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언어학의 미래

일찍이 촘스키(Chomsky 1957, p. 5)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성한 언어구조에 대한 모형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만약 부적합한 공식으로 틀린 결론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그 부적합성의 정확한 근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생성주의

학자는 언어를 설명하는 틀에 대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여 나가는 과정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능주의 학자는 언어의 여러 다양한 양상에 대하여 풍성한 관점과 해석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언어학계를 보자. 동부의 형식주의와 서부의 기능주의가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부의 기능론자들 가운데 옛날에는 형식론자였던 학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두 갈래의 언어학은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한번 보자. 2001년의 한국언어학회는 '21세기 국어학의 발전과 언어학의 미래'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언어학자들은 언어학의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학의 미래에 대한 진단은 사실 몇 해 전부터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오늘의 문법, 우리를 어디로』와 같은 폭넓은 연구가 제시하고 있듯이, 문법연구의 미래와 방향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형식주의 언어학의 토대가 잘 마련되고, 기능주의 언어학의 방향이 잘 설정된다면, 언어학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형식주의 언어학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주의는 언어를 연구하는 모형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문의 성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소주의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세부적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소주의는 언어습득에 관한 여러 성과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능주의는 형식주의가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성과를 잘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능주의가 분석하고 제시하는 언어의 다양한 성격은 형식주의의 연구방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형식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는 기능주의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상오·권청자 편. 1999. 『오늘의 문법, 우리를 어디로』. 이홍배 교수 회갑 기념 논총. 한신문화사.  
 이종민. 1996. 『열려라 영문법』. 프레스 하우스.

- 정인국. 1982. 『근대건축론』. 문운당.
- Anderson, S. 1999. A formalist's reading of some functionalist work in syntax. In M. Darnell et al., eds.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and Co.
- Chomsky, N. 1995a. *The Minimalist Program*. The MIT Press.
- Chomsky, N. 1995b. Bare phrase structure. In G. Webelhuth, ed.,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the Minimalist Program*, 385-439. Blackwell.
- Croft, W. 1995. Autonomy and functionalist linguistics. *Language* 71, 285-305.
- Darnell, M., E. Moravcsik, F. Newmeyer, M. Noonan, and K. Wheatley, eds. 1999. *Functionalism and Formalism in Linguistics, Volume I: General Papers*. John Benjamins.
- Givon, T. 1993a. *English Grammar I*. John Benjamins.
- Givon, T. 1993b. *English Grammar II*. John Benjamins.
- Goldberg, A. 1995. *Construc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le, K. and S. Keyser. 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In K. Hale and S.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The MIT Press.
- Jenkins, L. 2001. *Bio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no, S. 1987. *Functional Syntax*.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no, S. and K. Takami. 1993. *Grammar and Discourse Principles: Functional Syntax and GB The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onan, M. 1999. Non-structuralist syntax [Functionalist syntax position paper]. In M. Darnell et al., eds.
- Parsons, T. 1992.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The MIT Press.
- Walinska de Hackbeil, H. 1986. *The Roots of Phrase Struc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이종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우편번호: 561-756

전화번호: 063) 273-2735

E-mail: chongmin@moak.chonbuk.ac.kr

접수일자: 2002. 11. 1.

게재결정: 2002. 12. 13.